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1호 [부제 제25049호] 주제 104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건조되어 락원의 강, 대동강에 두동실 뗏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였다.

황병서동지, 김기남동지,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후생 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무어 옥류교와 대동교사이에 띄워놓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 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차례나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였다.



에서 잘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요소요소가 흠잡을데가 없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 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종합봉사선의 판통홀에 들어서니 호텔에 들어온것 같다고, 홀을 중심으로 매 층에 배치된 여러 식당들이 정말 멋있다고, 모든 식사실들의 형식이 다양하고 이채롭다고,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특색있는 원형승강기를 배치한것도 좋고 계단도 원형으로 시공했는데 잘 했다고, 특히 4층에 꾸려놓은 회전전망식당이 회한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부강하는 평양의 모습이 불만 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지개》호는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봉사시설인

민족음식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봉사받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유람할수 있게 건조된 《무지개》호의 연건평은 1만 1,390여㎡, 길이는 120m, 너비는 25m, 배수량은 3,500t이다. 4층으로 된 《무지개》호에는 민족요리 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식당, 야외갑판

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 유보도에 서시어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명룡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의 수용능력이 대단한것만큼 원자재보장대책을 잘 세워야 정상운영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며 누구나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게 하자면 봉사자들이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워놓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면서 건조실래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설계와 내외부시공이 최상의 수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었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날로 약동하고 문명해지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창조물, 만남의 편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하루 빨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어려있는 결정체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포조선소를 비롯한 선박공업부문과 조선인민군 제 5141군부대의 일군들, 근로자들, 군인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아들여가는 길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현대적인 종합봉사선을 우리 식으로 훌륭히 건조함으로써 당장건 일흔둥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



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



가 가서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 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건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모든 명역에서 세계적인수준에 올라설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자면 앞으로 건설하는 모든 봉사시설들을 《무지개》호수준으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깊은 밤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 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평양의 자랑인 대동강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없이 울려 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멘탈-플류스유한책임회사, 그라드스트로이그플유한책임회사, 스페츠레브스보스파르카유한책임회사 총사정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 멘탈-플류스유한책임회사 총사정 에스. 엔. 카우노브, 그라드스트로이그플유한책임회사 총사정 엠. 이. 가위아에게 드렸다.

사 총사정 아. 이. 벨로멘스키가 11일과 22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2일 로씨야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에는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23일 벨라루스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루시공산주의 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사무위원회 위원장 엠. 슈발리니코프가 선출되었다. 벨라루시공산주의 근로자당,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연방과 연방공산당을 위하여》전국

사회연합, 《조국과 쓰딸린을 위하여》국제사회연합,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정의를 위하여》사회연합을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이 준비위원회에 망라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상이 모셔져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자주성과 세계평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라는 글방이 걸려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다.

토론회에는 인디아공산당,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위. 데마라잔, 인디아 김일성연구소 주최 위원장 에스. 피. 파라크를 비롯한 인사들이 토론했다. 토론회자들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있는 당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 김일성주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그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파들어간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혁명의 온갖 풍파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될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아시안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위 곱다, 전인디아진보전선 중앙위원회 비서 위. 데마라잔, 인디아 김일성연구소 주최 위원장 에스. 피. 파라크를 비롯한 인사들이 토론했다. 토론회자들은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있는 당이다,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 김일성주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조선로동당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그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파들어간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혁명의 온갖 풍파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위용될지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로므니아, 나이지리아에서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7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또한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로라》, 《당창건기념》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인민당 중앙서기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각께서는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 국력이 약하여 외세의 식민지로 되었던 조선이 진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들의 높이 모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기때문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이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각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나이지리아 다마렐공영유한회사 사장 등 인사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이인 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조선에는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농업전선

과학적인 분석과 정확한 결심채택

안악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안악군 일군들이 10월의 대축전장을 맞이하여 일군의 안고 가을전선과 연말전선을 최적으로 질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에 맞게 짜고들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이며 농사결속을 잘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 불철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에서는 애써 지은 낱알을 가을집이철에 잃어버리는 현상을 막음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 군의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 가을집이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담보를 마련한 경우가 바로 그렇다.

군일군들은 예상수확고보다 실제 더 많은 소출을 내게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려면 가을집이작전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이 문제를 놓고 심중히 토의한 끝에 군일군들은 올해에는 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가을집이철을 지난해보다 늦게 시작하면서도 빠른 기간에 끝내기로 계획하였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 올해의 유다온 기온조건과 물, 비보장조건으로 해서 벼생육이 늦어졌고 이삭들의 여분물도 농장, 작업반마다 서로 각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이 아니었다. 가을집이작기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다른 올해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처럼 벼농사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시를 무시하고 벼농사를 진행하게 한다면 재물처럼 낱알을 수확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모든 조건들의 벼이삭들이 다 여분기를 기다린다면 가을집이철에 있을 수 있는 뜻밖의 자연피해를 받아 애써 지은 낱알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화를 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작전에도 혁신적인 안목에서 앞을 내다보며 예견성있게 해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깊이 새긴 군일군들은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조건들을 찾아보며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파장에 찾은 결론은 두가지였다.

하나의 벼농사전문가들에서 생육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벼이삭이 여분 정도에 따라 물매기를 할 조건과 눈에 물을 계속 대야 할 조건을 바로 정해 주는 것이었다. 논물매기를 잘하지 못하면 논안이 마르는 정도가 포진마다 각이하여 수확고와 가을집이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토양조건에 맞게 논물매기를 5~7일전에 선행시켜 논안을 말려주게 해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여분물에 따라 포진별로 가을집이철 시기와 순차를 정확히 정해주어 이른쪽 가을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봄내어때내 애써 가꾼 낱알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가을집이철을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방법론이 없이 포지나 하고 강조나 하는 식으로 일해가지고서는 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

문제를 이렇게 본 군일군들은 즉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가을집이, 낱알털기와 관련한 여분기사를 엄격히 농장에서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실지 조건에서 생육조사와 논

물매기, 가을집이작기전선 등 구체적인 기술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은 참가자들은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군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방법으로 고문을 개발시켰다.

보여주기사업이 있는 후 매 농장에서는 각 포진들에서의 여분물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에 따라 포진별로 따르는 논물매는 시기, 벼이삭이 여분은 측측 가을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순차를 바로 정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또한 담양포진들의 가을집이철 시기가 다른 포진에 맞게 로력 농장을 짜고들어 집중적으로 돌원하기 위한 작전도 동시에 펼쳐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실천해나간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군일군들은 지난해보다 가을집이철이 늦어진 조건에 맞게 벼이삭이 익는 측측 벼에 낱알털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박을 비롯한 여러가지 피해로 애써 지은 낱알을 허실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모든 농장

에서 분조마다 성능높은 이동식 소형탈곡기들이 준비된 조건에서 만가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파장에 이들은 이동식 소형탈곡기들로 포진에서 낱알털기를 하는 조건에 맞게 농장들에서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각 농장들에서 기계화작업반장들을 책임자로 하고 여기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시켜 현장에서 고장난 탈곡기들을 즉시 수리한다던 짧은 기간에 낱알털기를 할 수 있었다.

즉시 군일군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러하여 모든 농장들에서는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였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탈곡기들의 만가통보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비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벌어져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곳 일군들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판단과 분석에 기초하여 혁신적으로 일해나간다면 나라의 쌀독에 더 많은 쌀을 채워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전 명 일

변화된 조건에 맞는 작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벼를 잘 길러들이고 낱알털기를 낱알털기하여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을집이철의 질보장에 알곡소출의 예비가 있다.

중산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창수동무를 비롯하여 농장에서는 이런 립장에서 원심을 썼다. 그들은 지난해와 올해의 가을집이철조건을 분석하여 정확한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지난해에는 벼를 베서 논에 놓고 2-3일만 말려놓은 다음 다음에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증산군 읍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구를 받고 바로 나온 금야군 구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리종선동무를 주목할 일군들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지은 위대한 수평년도 장군님의 영도사색을 빛내이고 유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평년도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범람을 현실로 꽃피우야 한다.』

태원청년도끼종축장은 위대한 수평년도에서 가결한 전회의 나날에 몸소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셔서 수평년도의 영도사색을 빛내어주시고 현명하게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금야군 구룡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로전에 내려가 찾은 묘술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지은 위대한 수평년도 장군님의 영도사색을 빛내이고 유출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평년도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범람을 현실로 꽃피우야 한다.』

태원청년도끼종축장은 위대한 수평년도에서 가결한 전회의 나날에 몸소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셔서 수평년도의 영도사색을 빛내어주시고 현명하게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창조한 혁신

몇 해 사이에 새끼 생산을 8배로 늘인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일군들은 벼를 베고 나서 바로 단을 묶어 놓았다. 단을 묶는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낱알의 허실을 막을 수 없었다.

중요하게는 벼단을 움직이는 공정이 줄어들었다. 벼단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낱알의 벼알이 떨어지고 불 때 농장적으로 많은 낱알을 허실하게 된다. 단의 벼단을 몇차례 움직인다면 떨어지는 낱알은 적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낱알을 묶는 공정을 1.5배로 높일 수 있었다.

벼가울집이철과 낱알털기를 잘 지어 한알도 낱알도 허실하지 않게 대한 당의 뜻을 생명



가을집이작전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다.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태원청년도끼종축장에서 본사기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

요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주적 권리에 대해 《10월도발》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외세의 반공화국압박공조놀음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지금 남조선외교당국자들은 《북이 도발》 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가 보다 확대되고 강도높은 것으로 될것이라는니 하고 헛소리 돌리고 있다.

미국행 각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들 《북이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기세를 드러내다. 이러한 속에 제8차 남조선미국 《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남이사는 미국부흥과 국방성의 고위인물들과 만난 남조선외교부와 국방부의 당국자들은 《북의 미사일발사》는 그 무슨 《결의위반》이라고 영부내처럼 위외대면서 《도발적행위를 위한 긴급한 공조》와 《공중대응》에 대해 죽덕공문하였다.

마치 불맞은 총이처럼 화들짝 놀라 미국정국과 함께 《주제제재》를 논하는데, 《공조방안》을 마련한다 하며 북대응공조를 피우고 헛소리악함을 끌어내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는 말그대로 하늘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얼간이들이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흔을 선군조선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승전투에 맞이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다. 세인들은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누구나 어머니 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승전투에 멋있게 들어서기 위하여 국의 땅과 얼결을 바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공모

로 짓부서버리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것은 너무도 용감한 권리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위정발사와 관련한 우리의 자주적권리행사를 《도발》과 《결의위반》으로 매도하면서 미국과의 《공중대응》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강도들의 도발이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부여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해 《도발》이니 뭐니 하고 피해들 돌리면서 그것을 가로막아보고 남치는것은 곧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행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주고있다.

누구는 무엇이나 할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식의 남조선적인 이중기준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없으며 단호히 배격해왔다. 지금 우리를 핵억제력강화라고 떠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외세력이다. 그들은 이번에도 《통합국방협의체회의》나, 《억제전략위원회》나 하는것들을 버려놓고 그 누구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해서 《4D각진계합》에 따르는 타격계획을 모의하였다. 그를 위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선제공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로골화시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들의 이런 범죄적인 북침행동도발적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의 도발》이라는 요란한 판공지 필요조각이다. 현실은 진짜도발자는 누구인가 하는것을 단정하는데 후회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10월도발》설을 적국 내몰려면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박공조놀음에 열을 올리

또다시 드러난 인권유린자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당국의 인권유린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국제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핵유물들과 핵실험을 당하고 남조선에서 눈물겨운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공화국국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비인간성을 날달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몇몇전 권력자들을 위해 해외에 내다간 김병희내성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우호, 매수를 전문으로 하는 한 인신매매자간의 마수에 걸려들어 남조선으로 끌려갔다.

그는 자기가 속아서 잘못 왔다고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목살당하고말았다. 그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고 단식을 하는 등 별의별 노력을 다하였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 죄인의 감투를 쓰고 9개월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혈육 한결 없는 곳에서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며 사냥하는 가족을 애로하고 남조선에서 그를 돕는것이 고창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도 허튼바를 붙이면서 그가 가족들이 있는 공화국으로 돌아가는것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우리 주민은 유인, 암치한것으로 용납할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이지만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도 허튼바를 붙이면서 경제여류하고있는 것이야말로 초보적인 인권을 짓밟는 비인간적행동이다.

이렇듯이 땅에는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수난자를, 생리멸의 한을 안은 채 내세이상 가슴에 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불순한 목적됨에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으며 핵유물과 살인 가족들을 강제로 때어놓고 생리멸의 고통을 들게하고있다. 이것을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과연 보고만 있을수 있었는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내외의 인심에 역행하여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행위를 배후조종하고 부추기어 인권유린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 사실같은 은 거래와 전세계가 격분을 표시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은 총독재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인신매매도 서슴치 않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갈 인간의 권리마저 마구 짓밟는 저들의 추악한 반인륜적행위를 세계면전에 남이네 드러내놓았다. 이런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횡성수설하며 뽐수없이 늘어내는 것이야말로 역경이 그리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들과 영영 헤어져 몸서리는 인강생지옥, 인권의 폐허지대인 남조선에서 살았다고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김병희내성이 지난 4월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기사화한것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나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부도, 형제, 자식과 생리멸하고 팔을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가는 자기의 안락함을 심정을 토로하며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인간이란 어떻게 이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할수 있었는가. 남조선당국이 인권문제에 진심이 있다면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려는 우리 주민의 강렬한 요구를 무시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반공화국도발사동태에 매어달릴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저들의 반인륜적의악에 대해 용이보고 그들을 당장 비판할수 있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는 조선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존은 놀라보게 변모되고있는 평양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평양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동하는 슬결을 느낄수 있었다. 평양에는 인민을 위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수많은 일떠서고있다. 조선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제휴기간 미힘속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문화정생발전기들이 들어서 줄기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광만에 넘친 모습을 보았다. 이것을 통해서도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기수며빛 창조물들마다에는 자기 기념비에 대한 끝없는 충성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있다.

근면하고 정직한 조선인민은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수 없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낼 끝없는 결의에 충

로씨야에서 고조되고있는 미국의 침략정책 반대 기운

로씨야에서 최근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압력 지어 군사적간섭도 서슴치 않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반대하는 사회적이론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반미시위들이 연이어 벌어지고있다.

15일 에카제틴부르그주제 미국총영사관앞에서는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형상한 허수아비를 새겨놓고 만시지언이 벌여져 가짜총의 이복을 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양키는 제 집으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라!》 등의 글들이 적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침략행위형상한 허수아비의 앞가슴에 《나는 금덩이를 먹고 따라서 금강성과 우리로 가는 크림을 먹는다.》고 쓴 종이를 붙여 놓고 오바마를 때리고있는 행위를 허수아비를 때리고 칠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섹트르-베베르부르그에서 미국 침략정책과 대조선적대시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씨야연방 페닌공산주의청년동맹 섹트르-베베르부르그시위위원회 일군들과 공청원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행위를 항의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펼쳐나선 시위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산생시키고있는 미국과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법준의 작성

로씨야에서 최근 국가헌법준안을 완성하여 발표하였다. 14일 팔레스티나위원회 회의의 초안선언문 위헌결정을 국가회와 대통령의 국가관리체제를 하나로 통일시키게 될 273개의 헌법조항들을 준비하기 위해 5월부터 집중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헌법준안은 국제적인 결의에 따르는 피난민들의 귀국 또는 보상권리와 같은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와 팔레스티나정치체제에서의 팔레스티나에반중적의 지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강

미국의 침략정책 반대 기운

미국 침략정책과 대조선적대시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운명을 자력으로 개척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라지보스크에서는 로씨야주재 미국대사의 행장에 때를 맞추어 반미시위가 진행되었다. 미국총영사관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로씨야연방 페닌공산

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위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책을 규탄하고 미국의 정치가 어디에도 통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이 항의의 열파였다. 항의문은 미국이 수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고있으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사회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마다 정세를 악화시키며 위협을 높이고있다 단

제재와 고립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벨라루시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18일 한 지역언론에서 언현상태를 제재와 고립으로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새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파국과 위기, 전조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주지 못하였으며 세계무대에서는 힘의 방법으로 저들의 리의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더

이שראל의 살인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민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헤브론시에서 18살 남 처녀에 총격을 가하여 사망히 살해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로씨야

로씨야가 최근 고조되고있는 로씨야연방과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이의 일환으로 로씨야는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특별히 중시하면서 이를 계속 발전시키나가고있다.

현재 로씨야는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 올해에 불리한 대외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도 두 나라사이의 무역량은 감소되지 않았다.

현재 벨라루시에는 63억USS에 달하는 로씨야자금이 축적되어있는데 이것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대한

로씨야에서 고조되고있는 미국의 침략정책 반대 기운

로씨야연방 페닌공산주의청년동맹 섹트르-베베르부르그시위위원회 일군들과 공청원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행위를 항의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펼쳐나선 시위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산생시키고있는 미국과



오늘의 세계

알아크사사원을 둘러싸고 돌리싸고

스트라엘의 비법적인 행위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요르단, 튀르키예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알 아크사사원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해나섰다.

국제사회가 알 아크사사원에서 벌어지는 사태발전을 심각하게 주시하고있는것은 이것이 이슬람교도들의 성지로 간주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또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알 아크사사원이 안고있는 수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악랄한 병포강탈책동과 비법한 유해배교주의적 접근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알 아크사사원문제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관계에서 주요쟁점의 하나로, 절찬한 정치적문제로 되고 있다. 그것은 사원이 이슬람교와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쿠드스에 자리를 잡고있는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병포강탈에 나선 순조부러 쿠드스를 유해화하여 독립하려는 야심을 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람교도들의 성지인 알 아크사사원을 빼앗는것은 저들의 목적실현의 주요요소로 된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러 이스라엘은 알 아크사사원을 가로막아있어 유해화하기 위해 핵폭탄을 다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행위에 1967년 중동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 동부쿠드스를 장악하고 강제병합하였으므로 그 무슨 《치안유지》라는 구실밑에 알 아크사사원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유해교도들이 저들의 사원에 들어서려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 이스라엘은 그 무슨 법조항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유대인들의 알 아크사사원에서의 접근을 부추기며 힘으로 위협해주었다

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유대인국단분자들을 알 아크사사원에 들이밀어 팔레스티나인들과의 충돌을 조장하고는 그것을 수사로 강탈행위를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을 비롯한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였다.

《고교학력연구》의 미명하에 자는 사태발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있는것이 이슬람교도들의 사하면 없없이 이슬람교도들의 사원 출입을 가로막아나서는 등 오만무례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었다.

지나해에연도 알 아크사사원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스라엘군이 사원의 대문을 마스고 안으로 쳐들어가 팔레스티나인들을 대상으로 최루탄과 소리를 퍼붓는 마구 사용하였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사원 출입에 항의하는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였다. 알 아크사사원을 폐쇄하여 정체를 극도로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오늘날 알 아크사사원은 물론 쿠드스를 비롯한 강경지역들마다에서 더욱 악랄하게 행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알 아크사사원을 포괄하여 강경지역전체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어보려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강도적본색을 잘 보여준다.

언제인지 이스라엘의 한 고위관료는 쿠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은 이스라엘병력으로 있어서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며 따라서 이스라엘법치하에 있어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한적이 있다.

알 아크사사원을 빼앗아 유대인들이건으로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처사야말로 팔레스티나의 자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수십년간에 걸친 유해배교주의적 의 영장정책에 강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시대와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는 로씨야

로씨야연방 페닌공산주의청년동맹 섹트르-베베르부르그시위위원회 일군들과 공청원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로씨야의 주요부 역경제동반자이다. 두 나라의 세계시장에서 주요일군 수송물들이다. 쌍방향에서 현재 농산물과 식료품을 통한 무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분야의 협조전망은 대단히 크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각국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시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져 갈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두 나라의 세계시

진한 5월 따위기사에서는 신속반응동무력에 대한 불의의 전투범죄를 기행하였다.

아르메니아에서는 평화유지부력의 《불베의 우의-2015》 군사연습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한편 기구는 최근 12년동안에 22단계의 반미약작전을 벌여 300여의 마약을 압수하고 10만여건의 범죄를 적발해내고 있다.

로씨야는 농산물의 국산화에 우선적관심을 돌리며 이를 위하여 까사프루트만 가장 긴밀한 협조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도, 확정하였다.

로씨야는 올해초에 유라시아경제

론시점에서 주요국가들로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귀중한 재부원을 소유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쌍방은 이번 연단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서방압입자들에게 대한 견제와 맞설수 있도록 바로 여기에 경제 및 식음전담보가 있다는 인식을 재삼 확인하였다.

로씨야는 농산물의 국산화에 우선적관심을 돌리며 이를 위하여 까사프루트만 가장 긴밀한 협조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도, 확정하였다.